

| SRI-정책-2024-11 |

수원문화원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f Development Plan of the Suwon Cultural Center

최지연

CONTENTS

연구요약

01 서론 0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02 현황 분석 03

제1절 수원문화원 현황

제2절 지역 현황

제3절 지방문화원 정책 환경

제4절 지방문화원 사례

03 의견 수렴 31

제1절 시민 설문조사

제2절 내부관계자 의견 수렴

제3절 전문가 자문의견

03 수원문화원 발전 방향 53

제1절 운영 방향성 재정립

제2절 추진전략

참고문헌 65

연구요약

연구목적

- 수원문화원은 24년간 위탁운영 해왔던 시민회관 대신 신규로 설립된 빛누리아트홀 위탁운영을 맡으면서 원사를 원도심에서 서수원지역으로 이전하며 거점지역이 변화하게 되었음
 - 빛누리아트홀은 호매실 복합문화지구에 건립된 서수원 지역 첫 문화시설로 2024년 5월에 개관한 공연장 중심의 문화시설임
- 수원문화원이 처한 지역여건과 환경변화 하에서 수원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과 운영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원문화원이 놓인 현황을 파악하고 수원 지역 문화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빛누리아트홀을 포함한 문화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도 재정립하여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 및 결과

1. 수원문화원의 변화

- 팔달구 고등동 원도심 지역에서 서수원 지역으로 원사가 이전함으로써 거점 지역이 변화하였음
 - 인근 지역주민의 이용 비율이 높은 생활권 문화시설의 특성상 문화원이 위치해 있는 호매실과 인근 서수원 거주민들의 이용 비율이 높아질 것임
 - 주 이용층의 변화에 따른 문화원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소공연장인 '빛누리아트홀'을 운영을 맡게 되었음
 - 다목적 강당이었던 '수원시민회관'과는 다른 전문적인 공연장에 가까운 '빛누리아트홀'을 운영해야 하므로 이에 맞는 전문성과 조직운영이 필요함
 - 그동안 서수원 지역에 들어선 공공 공연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획이 요구됨

- 한편 전문 공연장이라고 하기에는 시설이나 장비가 미흡한 점이 있어 이러한 제약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함
- 인력변동과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조직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업무환경과 조건이 바뀌고 대규모 신규직원이 유입되면서 근무 분위기가 변화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함
 - 업무량 증가, 불평등한 처우 등으로 인해 조직 불만족 및 직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2. 지방문화원 정책 환경 및 수원시 문화적 환경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지방문화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책무가 강조됨
 - 지방문화원은 1965년 지방문화사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었으나, 1994년 지방문화원의 역할 및 기능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지방문화사업조성법」 폐지 후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제정함
 - 2002년부터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가권한과 관리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이 지자체로 지속적으로 이관됨
 - 2020년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활성화에 대한 책무가 강조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고유 핵심역할로서 지역가치의 창조와 공유가 강조되고 있음
 - 지방색 약화, 고유문화 소실 위기로 연결되어, 지역문화의 기록·보존·활용 주체로서 지방문화원의 중요성 인식
 -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기관화,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 소실 위기 지역 기억저장소(아카이빙) 기능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수원시의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는 35.3개로 수도권 50.2개, 전국 63.1개에 비해 적은 편이며 지역간 편차가 심함
 -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문화기반시설의 인구 백만 명 당 개수는 수원시는 12.6개로 수도권 22.0개, 전국 39.0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임
 - 팔달구에는 공공도서관 외에 모든 종류의 문화기반시설이 골고루 분포해 있는 반면 영통구에는 박물관만이 집중되어 있고 장안구에는 미술관과 문예회관이, 권선구에는 생활문화센터 한 곳만 있음
 - 공연장의 경우 전체 22개 중 약 70%에 해당하는 15개가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음

- 수원문화원이 이전한 서수원 지역은 인구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 권선구에는 수원시 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경기문화재단이 들어서 있는, 구 서울 농생대를 활용한 경기상상캠퍼스가 서수원지역의 유일한 문화공간이었으며 2024년 빛누리아트홀이 개관하면서 공공도서관 외에 최초의 공연시설이 들어선 것임

3. 수원문화원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이용객 수요조사

- 수원문화원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 및 지역 내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며, 특히 20-40대에서 수원문화원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 및 수원문화원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주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주민친화적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필요
 - 시민조사 결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사업과 차별화된 지역 축제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강좌 수업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개설되길 희망함
- 수원문화원의 개선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및 가족단위형 체험 프로그램,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수원문화원 방문객의 경우 가족 및 지인, 문화원 발행 홍보물 등 온라인 매체보다는 수원문화원의 행사 또는 지인의 영향으로 수원문화원을 방문하고 인지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기방문객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수원문화원 자체 지역행사 진행 등 필요
- 빛누리아트홀 희망 공연 종류로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연 섭외 및 기획 시 방문객 수요에 맞는 장르 구성 필요
 - 방문객 과반수가 프로그램의 기타 요인(가격, 접근성 등)보다는 프로그램 질(행사나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야 한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과반수가 공연이나 행사 진행 시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이며, 정기적 방문객은 기존 문화원 강좌 수강생이므로 신규 방문객이 올 수 있는 행사·공연 구성 필요

4. 임직원 의견 수렴

- 이관 전 문화원은 위치적 제약으로 유아, 청소년 등 젊은 층 유입에 한계가 있었으나, 장소 이관으로 학생 수요층이 많을 것으로 기대

- 지방문화원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하되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 재정립 필요
 - 수원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자료 보존 등) 지속하나 예산의 한계로 데이터 유실 우려(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예산 필요)
- 이관 전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문화원 공간을 기획, 공연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나 객석 수, 장비, 인력 등의 한계로 규모가 한정적이라 다소 아쉬움
- 수원문화원이 지방문화원으로서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고유사업들은 지속적 운영이 필요함(뿌리학교, 지역문화연구소, 민속자료 수집 발간, 문화학교 등)
- 공급자 중심의 사업구성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업 구성 및 운영, 신규 이용자 유입을 위한 사업 계획필요(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수요파악 필요)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은 일몰 필요
- 시민회관 시절보다 근무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으나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 처우는 달라지지 않음
 - 사업 특성상 근무 일정이 균일하지 않아 주말근무, 야근이 잦은데 야근수당 지급 제한 및 연차 사용이 어려워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 발생함
- 전반적으로 직원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부서간, 개인간 의견 충돌, 경영진의 의견이 강요되는 부분들이 있음

5. 전문가 자문의견

- 지방문화원은 전통 근현대 문화 유산의 전승과 계승 보전을 우선 목표로 하고 부수적으로 서비스될 것들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함
 - 문화재단과 다르게 지방문화원이 정체성을 가져가려면 지역학을 바탕으로 파생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문화원이 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문연구 중심의 지역학 연구소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학 관련 사업들을 특화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채록하는 거나 자료를 발굴정리하거나 아카이브 서비스 역할의 기초 거점이 될 수 있음
 - 지역 문화를 위한 시민 거점 기관이자 이와 연관된 공연·전시 플랫폼으로써 포지셔닝하고 이에 맞춰 사업의 가치나 방향을 재정립하여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록 함

- 수원문화원은 생활사 중심의 지역 문화와 관련된 아카이빙 교육, 이를 위한 네트워킹 혹은 플랫폼 역할을 해주며 생활사 중심의 지역학을 교육, 아카이빙, 콘텐츠 등으로 풀어내도록 함
 - 근현대 생활사를 소재로 하지만 동시대적으로 접근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며 생활사 기반의 지역학을 아카이빙하여 콘텐츠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교육과 연결하도록 함
- 문화원 직원들의 문화적 소양과 역량이 미흡해 보이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원 교육이 매우 중요함

정책제언

- 수원문화원 운영방향 재정립
 - 생활사미시사(지역 공동체의 생활문화)의 당대 기록화 중심의 지역학 사업 추진
 - 문화원의 지역학 사업은 학자나 전문가보다는 시민 중심의 지역학 활동 강화
 -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콘텐츠나 프로그램, 서비스 강화
 - 공연장과 전시장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동아리 운영
 - 이러한 운영의 변화를 추진해가기 위한 조직 혁신
- 기존 사업 정비
 -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인 “수원장치기”, “길마재줄다리기” 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
 - 제야새해맞이 경축타종과 해맞이 축제 중 하나의 사업은 정리하고 하나에만 충실하여 이 행사의 주최가 수원문화원이라는 인식 확산
 -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은 수원문화원의 특성과 여건상 무리이므로 일몰
 - 문화학교는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
 - 수원뿌리학교는 지역문화인력 및 시민기록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문화
 - 문화원에서의 지역학 사업은 전문가와 학자 중심의 연구 사업보다는 시민 중심의 개인·공동체 역사 기록사업으로 전환
 - 지역학 연구의 학술성은 ‘수원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원문화원의 수원지역 문화연구소는 수원지역문화연구소를 기록화 사업 중심의 (가칭)‘수원생활사(생활문화)연구소’로 재편

- <수원사랑>은 수원을 소재로 하는 일반 잡지의 성격이 강했는데 수원문화원의 소식지 성격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신규 추진 과제

- 외부 용역에 의뢰하기보다 내부 TF를 꾸려 외부 연구진과 협업하며 비전, 목표, 전략 등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중장기 계획 수립
-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의 SNS 계정을 개설하고, 문화행사와 빛누리아트홀 공연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 강화
- 생활사 자료에 대한 적절한 보존과 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상설 전시공간이 필요하므로 문화원의 마을기억 저장기능을 강화하는 마을 박물관 추진
- 회원제 등급화 등 회원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수원문화원 회원 모집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이용자층 및 재원 확보

□ 조직 혁신

- 외부 전문가 그룹을 통한 조직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조직개편
- 이사회가 재정적 후원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한다면 문화원 사업의 전문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인 중심의 자문위원회 구성
- 문화원의 직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조정하여 수평적 관계 강화
- 문화원의 업무를 업무량, 전문성, 강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류하여 팀 구성
 - 문화원의 업무는 크게 공연·전시·행사·교육 등 문화(사업)기획, 무대·조명·음향 등 기술 업무, 인사·총무·회계 등의 행정, 홍보·커뮤니케이션 업무로 분류할 수 있음
-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문화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조직의 변화로 소원해져가고 있는 개인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하는 동료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01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¹⁾

1 연구배경

- 수원문화원은 수원지역사 연구를 중심으로 향토문화 보전과 전승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수원 지역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금까지 문화원의 조직운영과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 수원문화원은 24년간 위탁운영 해왔던 시민회관 대신 신규로 설립된 빛누리아트홀 위탁운영을 맡으면서 원사를 원도심에서 서수원지역으로 이전하며 거점지역이 변화하게 되었음
 - 문화원의 수원시민회관 위탁운영은 2024년 12월로 종료 예정임
 - 빛누리아트홀은 호매실 복합문화지구에 건립된 서수원 지역 첫 문화시설로 2024년 5월에 개관한 공연장 중심의 문화시설임
- 수원문화원이 처한 지역여건과 환경변화 하에서 수원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운영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현재 수원문화원이 놓인 현황을 파악하고 수원 지역 문화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빛누리아트홀을 포함한 문화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도 재정립하여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본 연구는 수원시 담당부서에게 주제를 의뢰받아 시행한 정책연구임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24년을 기준으로 하되 각종 통계 등 자료 수집시 최근 5년 이내 자료를 활용함
- 공간적 범위 : 수원시 전역
 - 국내 문화원 및 유사 공연장 운영 사례 조사는 전국을 조사범위로 설정
- 내용적 범위
 - 수원시 문화 인프라 및 지역 현황 분석
 - 국내 지방문화원 운영 우수 사례
 - 수원시민 인식조사 및 이용자 조사
 - 문화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수원문화원 발전방향 및 운영전략

2 · 연구방법

- 문헌연구, 통계, 행정자료 분석
 -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선행연구, 지방문화원 정책 및 사례 분석
 - 수원시 문화환경 및 수원문화원 관련 환경 파악
- 사례 분석
 - 국내 우수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및 관련 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
 - 지방문화원 정책 동향, 지방문화원 운영 동향, 수원문화원 운영방향 등 자문
- 설문조사
 - 수원문화원에 대한 수원시민 인식조사(연구원 패널 활용) 및 수원문화원 이용자 조사
- 직원 면담조사
 - 수원문화원 임직원 대상으로 문화원 운영방향, 사업 내용, 조직문화 등 의견 청취

02

현황 분석

제1절 수원문화원 현황

1. 설립 및 지원 근거

- 수원문화원은 1956년 10월 28일 개원, 1964년 사단법인 설립 허가,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으로 재설립 인가됨
- 수원문화원의 기본 근거규정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임
 - 수원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재원, 운영비 등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짐
 - 수원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원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함
- 수원문화원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빛누리아트홀’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 빛누리아트홀 이전 원사로 사용하던 수원시민회관 위탁운영을 2024년 12월로 종료됨
- 수원문화원이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은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 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을 포함함

표 2-1 |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항	내용
제5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이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이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수원시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 및 위탁사업비(이하“보조금등”이라 한다)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등(이하“출연금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2 • 시설 현황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66번지

그림 2-1 | 수원문화원 위치



자료 :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p/entry/place/11795757?c=15.54,0,0,2,dh>

□ 시설규모

- 면적 : 대지면적 3,686.9㎡, 연면적 5,123.64㎡
-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공연장 449석

표 2-2 | 층별 현황

구 분	용 도	면적
지하1층	주차장, 용역원실, 발전기실, 전기실, 수장고 등	1,467.32㎡
지상1층	전시공간, 관리사무실, 기계실, 티켓박스, 수유실 등	700.32㎡
지상2층	공연장, 연습실, 분장대기실, 창고, 조정실 등	1,752.91㎡
지상3층	사무실, 향토문화연구소, 자료실, 창고, 강의실 등	1,203.09㎡

3 · 운영 현황

1) 조직 및 인력

□ 수원문화원의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임원 31명, 직원 13명으로 구성됨

- 임원은 원장 1명, 수석부원장 1명, 부원장 6명, 이사 21명(당연직 1명 포함), 감사 2명임
- 직원은 사무국장 1명, 부장 3명, 팀장 2명, 차장 1명, 대리 1명, 주임 5명임

□ 사무국장 하에 경영기획부, 문화사업부, 공연사업부(빛누리아트홀) 3개의 부서가 있음

- 경영기획부에는 부장 1명, 팀장 1명, 주임 1명으로 총 3명이고, 문화사업부는 부장 1명, 대리 1명, 주임 1명으로 총 3명, 공연사업부(빛누리아트홀)는 부장 1명, 팀장 1명, 차장 1명, 주임 3명으로 총 6명임
- 직원들의 근무연한은 최고 24년부터 최저 1개월까지로 다양함

그림 2-2 | 수원문화원 조직도



자료 : 수원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suwonsarang.com/sub/cc_organization.php

- 문화원사 이전과 아트홀 운영으로 인해 수원문화원은 조직적 변화를 맞게 된 상황임
 - 아트홀 운영을 위해 공연 기획 및 공연장 기술 인력이 증가하고 2024년 12월말로 시민회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들은 퇴직하고 있음
 - 직급체계가 부장, 팀장, 차장, 대리, 주임 등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기존 문화원 직원과 빛누리아트홀 직원간의 급여체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

표 2-3 | 수원문화원 업무 분장

부서	직위	업무 내용
사무국	국장	수원문화원 사무국 총괄
경영지원부	부장	경영지원팀·시설관리팀 업무 총괄, 문화원 주요일정 관리, 원장 의전 지원
	경영지원팀 팀장	경영지원팀 업무 총괄, 예산 및 회계 총괄, 이사회 및 총회 운영, 업무보고(대내, 대외)
	주임	격계간지 수원사랑 발간, 수원지역문화연구소 운영 및 사업지원, 수원부리학교 운영, 임면수 독립운동가 탄생150주년 기념사업, 민속자료 수집 및 자료 발간, 수원박물관사업소 협력 프로그램, 문화원 기록영상 관리, 보도자료 작성
문화사업부	부장	문화사업팀 업무 총괄, 각종 공모사업 총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빛누리대안학교” 담당
	대리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화성돌기, 경기도 민속예술제, 수원화성 축성체험,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금, 제야 및 경축 타종, 각종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수원교육지원청, 한문연, 경기문화재단 등)
	주임	아카이빙(데이터베이스) 추진, 수원사랑 큰잔치, 회원 관리, 문화학교 운영 관리, 우수민속보존 사업(수원장치기, 길마재 줄다리기), 어울아띠 봉사단 관리, 수원문화원 예술단 운영 지원, 각종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지역문화진흥원, 한문연, 경기문화재단 등)
공연기획부	부장	공연기획부 업무 총괄, 중장기 공연사업 기획, 공연계획의 수립, 공연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기타 공연기획에 필요한 업무
	공연기획팀 팀장	공연기획팀 기술업무 총괄, 빛누리아트홀 공연장 총괄책임자, 공연장 무대기계시설 운영 및 관리, 기타 업무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차장	공연장 무대조명시설 운영 및 관리, 빛누리아트홀 공연장 대관, 제작 등, 빛누리아트홀 공연장 안전관리자, 기타 업무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주임	공연장 무대음향시설·영상시설 운영 및 관리, 빛누리아트홀 공연장 대관(세외수입) 및 사용허가, 빛누리아트홀 공연장 안전관리자, 기타 업무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주임	공연장 로비·객석관리 운영, 공연장 질서유지 및 관리 (공연장 내외부 청결 상태 점검 및 시설 관리), 고객 불편사항 해결 및 서비스 제공, 공연진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안내원 스케줄 및 인력 관리, 빛누리아트홀 홈페이지 관리, 빛누리아트홀 회원 관리, 빛누리아트홀 홍보 작성 및 운영(SNS등)
	주임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시·기획·운영 및 관련 행정,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 관리, 공연기획에 필요한 업무, 각종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

자료 : 수원문화원 내부자료

2) 예산 현황

□ 2024년도 운영 예산은 18억 7,883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및 위탁금은 17억 7,658만원, 자부담(기부금 및 회비) 1억 226만원임

- 수원시민회관(수원생활문화센터) 운영 위탁금은 3억 2,902만원, 빛누리아트홀 운영 위탁금은 6억 1,393만원임(사업비 포함)

- 문화원 운영을 위한 시 보조금은 7억 675만원으로 이 중 경상비 3억 9,806만원, 사업비 3억 869만원임
-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1억 4,826만원임

표 2-4 | 2024년도 수원문화원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민간위탁금	보조금	지원금	자부담
계	1,878,838	942,958	706,756	148,264	80,860
문화원 운영 경상비	398,060	-	398,060	-	-
사업비	627,820	-	398,696	148,264	80,860
수원시민회관 운영	329,025	329,025	-	-	-
빛누리아트홀 운영	613,932	613,933	-	-	-

자료 : 수원문화원 내부자료

표 2-5 | 수원문화원 재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수 입				지 출		
	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계	사업수행비	일반관리비
2021년	1,092,606	53,640	1,026,634	12,332	982,759	935,643	47,116
2022년	1,264,163	116,580	1,119,543	28,040	1,047,493	347,321	700,172
2023년	1,333,679	109,623	1,192,212	31,844	1,192,212	494,900	697,312

자료 : 2021~2023년 공익법인 결산자료

4 • 주요사업 현황

1) 축제/행사 사업

□ 대보름 민속놀이 마당

- (목적)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참여로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고 예로부터 행해져 온 전통을 보존 및 전승
- (내용) 매년 정월대보름 즈음 화성행궁 광장에서 행궁방문객을 대상으로 윷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 공예체험 등을 진행함

- (시작시기) 1988년(제35회)
- (예산) 수원시 보조금
-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수원장치기”
 - (목적) 우수 전통 민속놀이인 수원장치기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의 민속 문화를 발전
 - (내용) 수원장치기를 전문적인 민속연구가를 통해 연출하여 시연
 - (시작시기) 1994년
 - (예산) 수원시 보조금
-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길마재 줄다리기”
 - (목적) 현존하거나 또는 그 형태가 남아있는 지역 고유의 민속놀이를 발굴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수 전통 민속을 보전
 - (내용)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의 하동마을 일대에서 전승되어오던 대동굿을 시민 앞에서 시연 및 재연
 - (시작시기) 1996년
 - (예산) 수원시 보조금
- 경기도민속예술제
 - (목적) 수원시의 대표적인 민속예술을 접하는 기회 제공
 - (내용)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민속예술제 행사에 수원지역 민속예술 팀을 구성해 참여
 - (시작시기) 1982년
 - (예산) 수원시 및 경기도 보조금
- 제야새해맞이 경축타종
 - (목적) 한 해의 아쉬움을 잊고 희망찬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기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인 수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회 제공
 - (내용) 매년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개최하는 여민각 타종 제야 행사
 - (시작시기) 2003년
 - (예산) 수원시 보조금

□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 순례

- (목적)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 순례'를 통하여 정조, 수원화성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정조대왕의 효(孝)와 위민사상을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내용) 여름방학 기간 중 학생들을 모집(60명)하여 창덕궁 → 과천행궁 → 수원화성 → 용릉까지의 길을 체험 순례
- (시작시기) 2004년
- (예산) 수원시 보조금

□ 정조대왕·혜경궁 홍씨 선발대회

- (목적)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에 참여하는 정조대왕·혜경궁 홍씨 선발
- (내용) 정조대왕 역 6명과 혜경궁홍씨 역 13명 선발
- (시작시기) 1996년
- (예산) 수원시 보조금

□ 수원화성 축성체험

- (목적) 수원 화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기회 제공과 동시에 교육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
- (내용)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동안 축제 방문객들을 부대행사로 축성체험 프로그램 제공
- (시작시기) 2004년
- (예산) 수원시 보조금

2) 교육 사업

□ 문화학교 운영

- (목적)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역량을 제고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 서로 어울림을 배우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케 함
- (내용) 분기별로 수강생 모집하여 예술강좌 프로그램 클래스 운영
- (시작시기) 1988년
- (예산) 수원시 보조금

그림 2-3 | 2024년도 3분기(7~9월) 문화학교 프로그램

+ 빛누리아트홀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시간	요일	대상	인원
소망담은 전통민화반	10:00 - 12:00	매주 목	성인	20명
전각&색연필화	10:00 - 12:00	매주 월	성인	20명
어린이 문화학교(그림책 예술놀이)	14:00 - 15:30	매주 수	초등 1-3학년	15명
어린이 문화학교(나도, 연주개)	15:40 - 17:00	매주 수	초등 4-6학년	15명
이주민 한국어반	10:00 - 11:50	매주 월·금	이주민	20명
결혼 이주 여성 합창반	10:00 - 12:00	매주 토	이주민	20명
중국 전통 악기 얼후 배우기	17:00 - 18:00	매주 토	성인	20명

+ 수원시민회관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시간	요일	대상	인원
수원대유평농악반	12:00 ~ 14:00	매주 월	성인	20명
태평소반	19:00 - 21:00	매주 화	성인	20명
모듬북반	09:30 - 11:30	매주 화·목	성인	20명
경기민요반	13:00 - 15:00	매주 화	성인	20명
한국무용반	10:00 - 12:00	매주 수	성인	20명

자료 : 수원문화원, 수원사랑 vol.287 p.60

□ 수원부리학교

- (목적) 수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원시민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내용) 수원화성, 지역 문화예술인물 등 주제별 실내강의와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강의과정 12회차) 및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우리 역사문화 이해하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연계과정, 12회차)
- (시작시기) 2016년
- (예산) 수원시 보조금

3) 지역학 연구/발간 사업**□ 수원지역문화연구소 운영**

- (목적) 옛 수원군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연구 개발 자료를 제공하며 연구
- (내용) 학술대회 개최 및 논문집 <수원지역문화연구>, 단행본 발간

- (시작시기) 1995년
- (예산) 수원시 보조금

□ 민속자료 수집 및 발간

- (목적) 수원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조사수집하여 풍부한 지역문화 자원을 확보
- (내용) 문헌자료 조사 및 수집, 구술자료 채록 등
- (시작시기) 2016년
- (예산) 수원시 보조금

□ <수원사랑> 발간

- (목적) 수원의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내용과 소식 공유
- (내용) 수원지역의 역사, 자연, 전통, 인물, 문화활동, 기행, 문화시설 등 다양한 소재를 찾아서 발굴하고 글, 그림, 사진으로 답아서 소개
 - 2023년까지 계간지로 발간되었으나 예산 감소로 인해 2024년부터 연 2회 발간으로 변경
- (시작시기) 1988년
- (예산) 수원시 보조금

4) 사업 분석

- 시민회관 및 빛누리아트홀 운영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5억 3,782만원이고 이중 보조금은 2억 8,729만원, 공모사업 지원금은 1억 4,826만원임
 - 교육사업은 공모사업 지원금 비율이 높은 반면 축제/행사 사업은 보조금 비율이 높음

표 2-6 | 2024년도 수원문화원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보조금	공모사업 지원금	자체 예산
계	537,820	287,296	148,264	106,860
지역학 사업(2개)	76,000	76,000	-	-
교육 사업(8개)	200,664	40,000	148,264	12,400
축제/행사 사업(9개)	154,296	151,296	-	3,000
기타(3개, 일회성 사업 포함)	106,860	20,000	-	86,860

자료 : 수원문화원 내부 자료

-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이 가장 높고, 공모사업 지원금 예산으로 실행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업이 가장 낮음

표 2-7 | 2024년도 수원문화원 사업 내부평가

예산구분	사업	평가	사업 성격
보조금	제35회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3.5	축제/행사
보조금	2024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수원장치기"	1.9	축제/행사
보조금	2024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길마재줄다리기"	1.8	축제/행사
보조금	제26회 경기도민속예술제	2.8	축제/행사
보조금	수원사랑 발간	3.2	지역학
보조금	수원뿌리학교 운영	3	교육
보조금	수원지역문화연구소 운영	3.3	지역학
보조금	민속자료 수집 및 발간	3.1	지역학
보조금	문화학교 운영	3.4	교육
보조금	제야 · 새해맞이 경축타종	2.6	축제/행사
보조금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3.3	축제/행사
보조금	필동 임면수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 사업	1.9	기타(일회성)
보조금	2025 을사년 수원특례시 해맞이 축제	2.1	축제/행사
보조금	2024 정조대왕 · 혜경궁홍씨(역) 선발대회	2.3	축제/행사
보조금	수원화성축성체험	3	축제/행사
공모사업 지원금	2024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1.6	교육
공모사업 지원금	2024년 5060 신중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3.4	교육
공모사업 지원금	2024 경기도 청소년 예술교육 장르 특화 사업	3.4	교육
공모사업 지원금	2024 방과후 공유학교	3.4	교육
공모사업 지원금	2024 어르신 국어문화프로그램	2.4	교육
공모사업 지원금	2024 여름방학 거점형 돌봄 공유학교	2.5	교육
자체예산	제17차 해외문화탐방	2.8	기타
자체예산	수원문화원사 백서 발간	2.4	기타(일회성)

제2절 지역 현황

1 수원시 문화환경

- 수원시의 문화기반시설은 총 42개로 공공도서관, 공·사립 박물관, 공·사립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의 집과 문학관은 없음
- 문화기반시설 종류별로는 공공도서관이 27개로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64.3%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문화기반시설에서 공공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은 38.2%, 수도권은 48.1%임
 - 공공도서관을 제외하면 박물관 7개, 미술관 2개, 생활문화센터 3개, 문예회관 3개, 지방문화원 1개로 총 16개임
- 수원시의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는 35.3개로, 수도권 50.2개, 전국 63.1개에 비해 적은 편임
 -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문화기반시설의 인구 백만 명 당 개수는 수원시는 12.6개로 수도권 22.0개, 전국 39.0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임
- 문화기반시설은 구별로 팔달구와 영통구에 각각 14개가 위치해 있고 권선구에 8개, 장안구에 7개가 있음
 - 공공도서관은 모든 구에 분포해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제외하면 팔달구 8개, 영통구 5개, 장안구 2개, 권선구 1개로 주로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음
 - 팔달구에는 모든 종류의 문화기반시설이 골고루 분포해 있는 반면 영통구에는 박물관이 집중되어 있고 장안구에는 미술관과 문예회관이, 권선구에는 생활문화센터 한 곳만 있음

표 2-8 | 수원시 문화기반시설

위치	개소	비율(%)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계	42	100.0	27	7	2	2	3	1 [†]
장안구	7	14.3	5	-	-	-	1	-
권선구	8	19.0	7	-	-	1	-	-
팔달구	13	31.0	6	2	2	1	2	1
영통구	14	33.3	9	5	-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23. 1. 1. 기준)

† 2023년 기준이므로 문화원 소재지가 팔달구로 되어 있음

- 수원시 소재 등록공연장은 총 22개로 운영주체별로는 수원시 11개, 경기도 3개, 민간 8개임
- 공연장의 경우 전체 22개 중 약 70%에 해당하는 15개가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음
 - 장안구는 수원SK아트리움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수원제2야외음악당, 한누리아트홀이, 권선구에는 2024년 개관한 빛누리아트홀, 영통구에는 소규모 민간공연장만이 위치해 있음

표 2-9 | 수원시 공연장 현황

구분	개소	비율(%)	수원시	경기도	민간
계	22	100.0	11	3	8
장안구	4	18.2	4	-	-
권선구	1	4.5	1	-	-
팔달구	15	68.2	6	3	6
영통구	2	9.1	-	-	2

자료 : 경기데이터드림 <https://data.gg.go.kr/portal/searchPage.do?searchWord=%EA%B3%B5%EC%97%B0%EC%9E%A5>

2 • 권선구 및 서수원 지역 특성

1) 인구 및 주거

- 권선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4년 10월 31일 기준 363,133명으로 수원시 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0년대 들어 금곡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 지역의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음
 - 진행 중인 당수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서둔동, 곡선동 일대는 농촌진흥청 소유 전답이 많았는데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권선구의 평균 연령은 43세로 수원시 42.2세에 비해 높으나 영통구(39.2세)에 이어 4개 구 중 2번째로 적은 편임
 - 권선구의 유소년 인구(0~14세) 비율은 10.9%이고,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7%임

표 2-10 | 인구 현황(2024년 10월 기준)

구분	인구(명)	0~14세 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명)	유소년 인구 비율(%)	고령 인구 비율(%)	노령화 지수 [†]	평균연령(세)
수원시	1,194,006	133,399	166,279	11.2	13.9	124.6	42.2
장안구	274,850	27,103	45,154	9.9	16.4	166.6	43.9
권선구	363,133	39,552	53,551	10.9	14.7	135.4	43
팔달구	194,689	17,383	33,201	8.9	17.1	191.0	44
영통구	361,334	49,391	34,373	13.7	9.5	69.6	39.2

자료 :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노령화지수 = 고령 인구 / 유소년 인구 *100

□ 권선구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61.1%로 영통구(79.3%) 다음으로 높은 편이나 수원시 평균(62.9%)에 가까움

○ 가장 아파트 비율이 낮은 구는 팔달구 51.4%이고 장안구는 55.5%임

표 2-11 | 수원시 주택현황

(단위: 호, 세대)

구분	주택 총계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소계	단독일반	다가구주택			
수원시	492,619	113,387	15,273	98,114	59,695	9,641	309,896
장안구	116,317	30,483	3,971	26,512	19,489	1,795	64,550
권선구	152,439	34,048	4,814	29,234	22,264	2,944	93,183
팔달구	90,984	26,578	4,154	22,424	15,400	2,260	46,746
영통구	132,879	22,278	2,334	19,944	2,542	2,642	105,417

자료 : 통계로 보는 수원(2024년 10월말 기준) <https://www.suwon.go.kr/stat/stats/statsView.do?categorySeqNo=189#none>

2) 문화적 특성

□ 권선구는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나뉘는데 그 중 서수원 지역은 대체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음

○ 서수원 지역은 예전에 농촌진흥청과 서울 농생대가 위치해 있던 곳으로 농업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행해지고 있음

○ 서수원 지역은 문화시설, 병원 같은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개발이 진행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공공도서관 외에 문화기반시설은 생활문화센터 1개만 보유하고 있어 문화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경기문화재단이 들어서 있는, 구 서울 농생대를 활용한 경기상상캠퍼스가 서수원지역의 유일한 문화공간으로 생활문화센터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음
 - 2024년 빛누리아트홀이 개관하면서 공공도서관 외에 최초의 공연시설이 들어선 것임
- 203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 지역을 도시농업 및 친환경주거 특화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개발가용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낙후된 서수원지역 개발을 통한 동/서수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친환경생태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 주거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제3절 지방문화원 정책 환경

1 지방문화원 관련 법·제도

1) 지방문화원진흥법

- 지방문화원은 1965년 지방문화사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비영리 문화사업자로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법을 근거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무상 대여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향토문화의 계발·보급과 전통문화진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방문화원’으로 정착됨
- 1994년에는 지방문화원의 역할 및 기능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폐지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제정하였음
 - 이 법을 근거로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며, 특별법인으로써 문화사업을 수행함
 - 「지방문화원진흥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대한 책무,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 설립 관련 사항 등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2020년에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개정하였음
 - 이 개정을 통해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2011년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어있으나, 기본계획에 수립에 대한 시점과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표 2-12 | 지방문화원진흥법

조항	내용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관련 법령

- 지방문화원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의 유지와 건전한 활동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기준·정관의 준칙·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4조에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며,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항목이 포함됨

2 • 지방문화원 정책

1) 정책 변화

- 지방문화원은 시·군 향토주민의 자치에 의한 향토문화사업 중심인 문화단체이며, 1개 시·군에 1개의 문화원이 전 지역을 관할하므로, 문화원에게는 향토문화사업의 중심 역할이 주어짐

 - 지방문화원은 국가에 의해 제도적인 보호를 받는 향토문화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게 됨

- 2002년부터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가권한과 관리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이 지자체로 지속적으로 이관되었음
- 2020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되고 지방문화원 지원과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책무가 강조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은 시대에 따라 그 기능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타 문화시설과 유사한 기능도 하고 있으나, 지역의 향토사와 향토문화에 관한 연구와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교육, 주민들 대상 문화공간과 각종 문화서비스 제공을 주로 담당함
- 1940년대 말부터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지방문화원이 자생적인 시설문화원 형식으로 조직되었음
- 1970년대 이후 지방문화원은 향토문화연구를 시작하며 지역문화 자료 수집·연구·발간에 집중하며 1980년대 이후 문화행사를 통한 전통문화 재건에 힘썼으며, 1990년대에는 문화학교를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교육, 감성훈련을 담당하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2010년대부터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실버문화페스티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는 지역인구 불균형 심화와 이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축적해온 지역 고유문화 분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중심 역할이 부여됨

표 2-13 | 지방문화원의 사업 범위

구분	내용
지방문화원 진흥법	<p>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p>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p>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

- 2020년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함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은 ‘지역다움을 통한 문화강국으로 도약’ 비전 아래, ‘지역가치 발굴·확산 중심으로 문화원 고유역할 강화’, ‘체계적 지원 통한 문화원 장기지속성 확보’, ‘우수문화원의 적극적 발굴·지원 통한 성과 확산’을 목표로 삼음

그림 2-4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 p.6

제4절 지방문화원 사례

- 우수한 지방문화원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수원문화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하고자 함
 - 사례조사 대상 문화원 선정은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전문가 추천을 받아 선정함
 - 경기도권 기초지자체 문화원의 지역학 사업, 문화원의 공연장 운영, 전반적인 문화원 조직 및 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사례 문화원을 선정하였음
 - 각 문화원 홈페이지 정보, 제공받은 문헌자료 및 사무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음

1. 도봉문화원

1) 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창동, 도봉구민회관)
- 개원일 : 1994. 8. 20
- 운영예산 : 11억 2,556만원(보조금 8억 6,847만원, 자체 수입 2억 5,709만원)
- 시설 현황 : 사무공간 외에 자료실, 갤러리, 강의실 4개, 체육실 2개
 - 도봉구민회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편지문학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2) 조직구성

- 도봉문화원은 총회 아래 문화원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근무인력 총 13명(사무국장 1명, 총괄부장 1명, 팀장 2명, 주임 5명, 기간제 4명)으로 이루어져있음
 - 이사회는 총 20명으로 원장 1명, 부원장 3명, 이사 14명(당연직 2명 포함), 감사 2명으로 이루어짐
 - 원장 직할로 고문 1명과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림 2-5 | 도봉문화원 조직구성



자료 : 도봉문화원 홈페이지 <https://www.dobong.or.kr/main/main.php?categoryid=07&menuid=04&groupid=00>

3) 주요 특징

□ 도봉문화원-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도봉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인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25년 덕성여자대학교와 함께 연계하여 서울·인천 권역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음
- 교육의 기본과정('지역문화 튜토리얼:시작하기')을 통해 지역문화에 입문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학 기초 이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도봉문화원 직원들의 대다수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출신임

□ 도봉문화원은 국내 최초로 편지문학관을 운영

- 전시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402.31㎡규모로 조성, 22년 3월 개관
- '편지'라는 소재로 도봉의 역사와 문화, 인문학적 특성을 녹여 디지털 시대에 구민들이 아날로그적 가치와 인문학적 소양,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음
- 미디어테이블, 마음저장소, 음성편지, 포토존 등 전시 체험 프로그램 시설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상설전시로 편지의 역사, 도봉의 인물 및 위인, 예술인이 쓴 편지를 관람하도록 함
- 체험편지 인문학 특강, 편지 낭독 콘서트,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한낮의 손편지 낭독회, 편지쓰기 및 예쁜 엽서 만들기 등의 교육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2-6 | 도봉문화원 시설 및 현황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2 • 이천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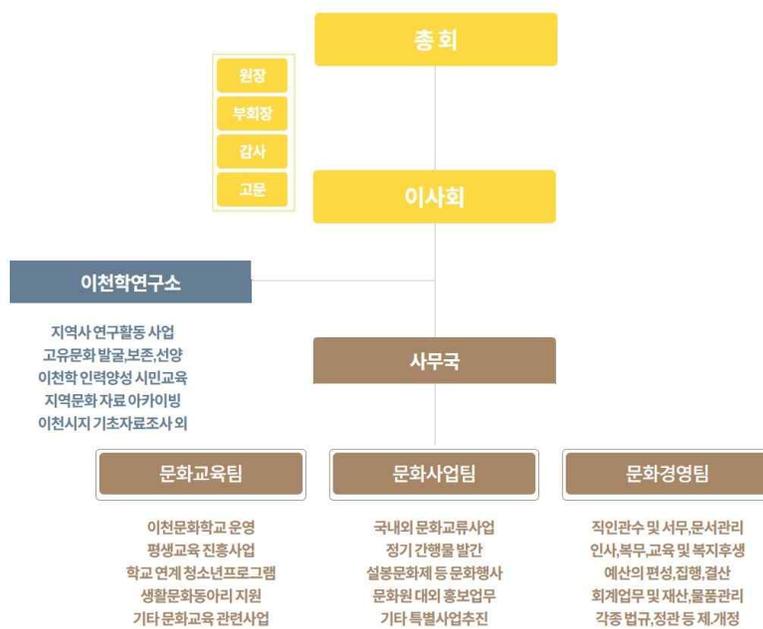
1) 개요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중리동행정복지센터 2층
- 개원일 : 1963. 5. 10
- 운영예산 : 11억 556만원(보조금 8억 6,091만원, 자체 수입 2억 4,568만원)
- 시설 현황 : 사무공간, 시민기록관실, 이천학연구소, 스튜디오, 강의실, 회의실
 - 중리동행정복지센터의 2층을 문화원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복도와 로비를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행정복지센터 내 강당 및 강의실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함

2) 조직구성

- 이천문화원은 사무국은 문화교육팀, 문화사업팀, 문화경영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근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팀장 3명, 주임, 이천학연구소 연구원 총 5명임
- 임원직은 원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고문 1명이며 이사회는 총 40명으로 구성됨
- 이천학연구소는 원장 직할로 비상근 소장 1명과 상근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됨

그림 2-7 | 이천문화원 조직구성



자료 : 이천문화원 홈페이지 <https://www.cc2000.or.kr/page/about/organization.php>

3) 주요 특징

- 이천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학 연구의 단초가 되는 지역학 자료 아카이빙
 - 마을지 만들기, 이천 시민들의 구술생애 기록인 이천사람실록 발간, 고문헌·신문·사진 등 근현대 이전 자료 수집하여 자료집 발간, 다양한 자료를 집대성한 아카이브 홈페이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민기록관을 운영하며 이천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시민에 공개하고,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 및 생산을 위해 디지털룸과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소장한 사진, 문서 등의 자료를 디지털화해 제공하면서 지역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그림 2-8 | 이천문화원 시설 및 현황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 시민기록자 양성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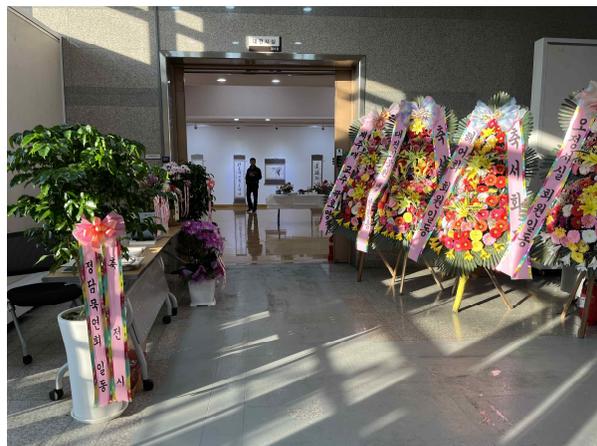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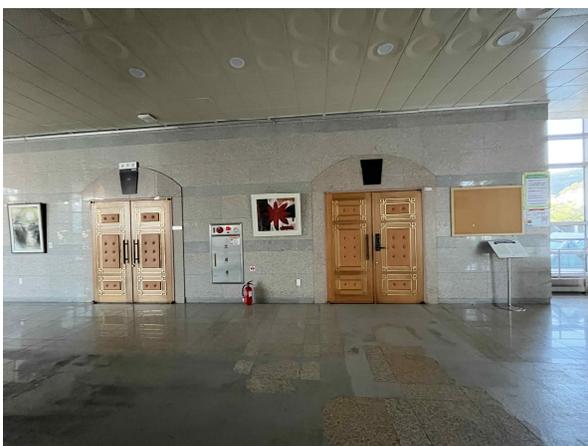
- 2017년 6월부터 '시민기록자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시민기록자 자격증을 부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함
- 시민기록자들은 매년 마을지 만들기 사업과 구술생애사 사업에 참여하여 이천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신의 관심에 따라 이천문화아카이브 사업, 기록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 시민기록자들은 마을라디오와 사진회, 아트도슨트, 이야기보따리 등 다양한 형식의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음

3 • 대전 대덕문화원

1) 개요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48(읍내동)
- 개원일 : 1994. 12. 22
- 운영예산 : 10억 1,518만원(보조금 8억 6,091만원, 자체 수입 2억 4,568만원)
- 시설 현황 : 사무공간, 공연장, 갤러리 2개, 강의실 4개, 작은도서관
 - 대덕문화원은 대덕문예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원사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2-9 | 대덕문화원 시설 및 현황



자료 : 연구진 직접 촬영

2) 조직구성

- 대덕문화원은 사무국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7명임
 -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부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주임 3명으로 이루어짐
 - 임원은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사 19명(당연직 1명 포함), 감사 2명 총 24명임

그림 2-10 | 대덕문화원 조직구성



자료 : 대덕문화원 홈페이지 https://www.ddcc.or.kr/sub_01/0104.php

3) 주요 특징

- 대덕문화원은 대덕구 대표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진흥에 기여
 - 대덕구는 구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춘당 문화제, 김호연재 여성문화축제, 전통민속 문화행사, 민속보존 마을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출범 초기 대덕문화원은 대덕문화회, 대덕미술작가회, 대덕사진동호인회, 대덕시낭송회 등을 창립하였음
 - 1995년 대덕문화원이 출범한 이래 대덕구의 대표 문화콘텐츠는 대덕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 수상에 이어 2020년에도 ‘대상’을 수상하였음
- 대덕문화원은 대덕문예회관을 위탁운영
 - 대덕문화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덕문예회관 위탁운영을 해왔으며, 2018년 대덕문예회관 관리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지금까지 대덕문예회관을 운영하고 있음
 - 대덕문화원은 대덕문예회관을 위탁 운영 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방방곡곡 문화공감·생활문화콘텐츠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들과 협력모델을 구축하였음

- 공연·전시·생활문화·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추진 및 30여개 생활문화강좌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영역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기획프로그램은 중앙부처와 기관의 공모사업, 상주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기획예산의 부족을 보완하고 있음

4 • 시사점

- 지방문화원은 지역학 연구의 주체적 역할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으며,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등 문화원의 고유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문화원의 사업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을 포함함
 - 도봉문화원과 이천문화원은 지역학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지역문화 발굴·보존 계승을 위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등 지역학 연구 및 지역문화 정체성 함양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대덕문화원은 별도의 연구소를 운영하지는 않으나 대덕구 대표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문화원은 인력이나 재정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의 보조금 지급제외 대상사업에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활동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원에 대한 출연금이나 보조금 직접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임
 - 재정의 대부분을 지자체 지원금에 의존하지만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금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으며 회원 확대를 통해 자체 재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03

의견 수렴

제1절 시민 설문조사

1 수원문화원 시민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 수원문화원 시민 인식 설문조사는 현재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내국인(24년9월 기준)을 대상으로 성별, 거주 지역, 연령에 비례하여 할당한 표본 390명을 대상으로 진행
 - 수원시정연구원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

표 3-1 | 수원문화원 시민 인식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주민등록지를 수원에 둔 거주자
조사 지역	• 수원시 전체 지역별(구 단위)
조사 표본	• 390명(성별, 거주 지역, 연령 비례할당 모집단과 표본 전체 합계에 비례하여 가중치 부여)
조사 방법	• 수원시정연구원 온라인 패널 조사
조사 기간	• 2024.11.04.~11.11.(8일간)

-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 및 수원문화원 인지도, 수원문화원 사업 인지도 및 참여의향, 수원문화원 역할, 응답자특성으로 구분

표 3-2 | 조사내용

구분	설문 내용
지방문화원 및 수원문화원 인지도	• 지방문화원 /수원문화원 인지여부 / 수원문화원 인지경로 /수원문화원 이미지 / 수원문화원 지역사회 인지도
수원문화원 사업 인지도	• 수원문화원 사업 인지 및 참여 여부 / 수원문화원 사업 참여 의향
수원문화원 역할	• 희망하는 수원문화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응답자 특성	• 성별 / 연령 / 거주 지역(구) / 거주기간

표 3-3 |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390)	100.0
성별	남성	(197)	50.5
	여성	(193)	49.5
거주 지역	장안구	(88)	22.6
	영통구	(117)	30.0
	권선구	(120)	30.8
	팔달구	(65)	16.7
거주 기간	1년 미만	(3)	0.8
	1년 이상~3년 미만	(31)	7.9
	3년 이상~5년 미만	(36)	9.2
	5년 이상~10년 미만	(73)	18.7
	10년 이상~20년 미만	(100)	25.6
	20년 이상	(147)	37.7
연령	20대	(67)	17.2
	30대	(80)	20.5
	40대	(78)	20.0
	50대	(79)	20.3
	60대 이상	(86)	22.1

2) 인식조사 결과

(1) 지방문화원 인지도

- 지방문화원 인지 여부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55.3%가 '들어본 적 있으나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26.8%는 '들어본 적 없고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잘 모른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18%만이 '들어본 적 있고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잘 안다'고 응답함
- 연령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들어본 적 없고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잘 모른다'가 47.8%로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 지방문화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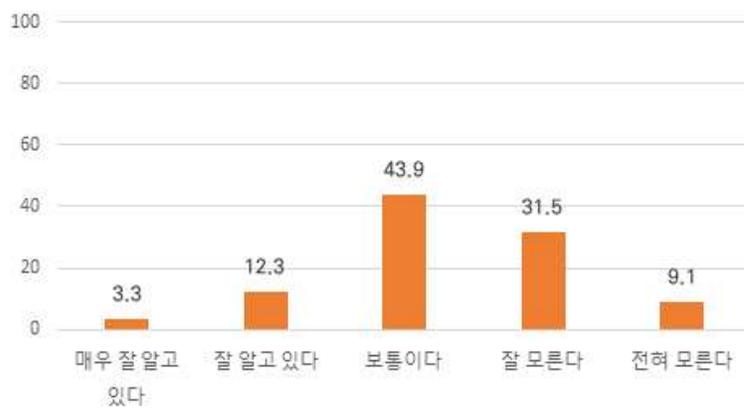
그림 3-2 | 연령별 지방문화원 인지도



(2) 수원문화원 인지도

- 전반적으로 수원문화원 인지 여부에 긍정적 응답 비율(15.6%)보다 부정적 응답비율(40.6%)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수원문화원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0.6%가 수원문화원을 ‘전혀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함
 - 가장 많은 응답으로 43.9%가 ‘보통이다’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잘 모른다’ 31.5%, ‘잘 알고 있다’ 12.3%, ‘전혀 모른다’ 9.1%, ‘매우 잘 알고 있다’ 3.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 | 수원문화원 인지도



- 연령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수원문화원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20~40대 연령층에서 약 50%가 수원문화원을 ‘모른다’고 응답함
 - 20대는 56.5%가 수원문화원을 ‘잘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30대는 56.2%가 응답하였으며, 40대는 48.7%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20대와 30대 응답자 중 수원문화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0%(0명)로, 청년층에서 수원문화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 연령별 수원문화원 인지도



- 수원문화원 인지 경로에 대해서는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26.9%, ‘수원문화원 주관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19.3%, ‘관공서(행정복지센터 등)’ 11.8% 순으로 응답함
- 이밖에도 ‘가족 및 지인’ 10.9%, ‘인터넷 뉴스’ 8.8%, ‘수원문화원 홈페이지’ 8.8%, ‘수원문화원 소식지(레터)’ 8.8%, ‘직접 방문’ 4.2%, ‘기타’ 0.8% 순으로 조사됨
- 온/오프라인 경로로 나누어 살펴보면 온라인의 경우 수원문화원 자체 홈페이지 및 소식지보다는 SNS를 통한 인지 비율이 높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수원문화원 주관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관공서, 가족 및 지인을 통해 인지하는 것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함

그림 3-5 | 수원문화원 인지 경로



- 수원문화원 지역사회 인지도가 낮은 이유에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가 36.9%,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몰라서’가 3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이밖에도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5%, ‘찾아가기 어려워서(교통이 불편해서)’ 4.3%, ‘기타’ 1.4%, ‘다른 기관이랑 헷갈려서’ 0.8%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 | 수원문화원 지역사회 인지도 낮은 이유



(5) 수원문화원 주요 사업 인지 및 참여 경험

- 수원문화원의 주요 사업 20개 항목에 대하여 인지 여부(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와 참여 여부(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없다)를 구분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개 사업 중 17개 사업에서 ‘모르고 참여한 적 없다’가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참여한 적 없다’가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제야, 새해맞이 경축타종’,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정조대왕, 혜경궁홍씨(역) 선발대회’의 경우 ‘알고 있지만 참여한 적 없다’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알고 있고 참여한 적 있다’의 응답 비율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수원화성축성체험’, ‘제야, 새해맞이 경축타종’,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수원화성돌기’이며, 모두 수원시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성 행사에 속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음

표 3-4 | 수원문화원 주요 사업 인지 및 참여 경험

(단위 : %)

구분	알고 있고 참여한 적 있다	알고 있지만 참여한 적 없다	모르지만 참여한 적 있다	모르고 참여한 적 없다	합계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7.6	32.1	6.7	53.5	100
수원장치기	2.9	21.9	6.0	69.2	100
길마재줄다리기	5.7	20.9	4.3	69.1	100
경기도민속예술제	6.1	32.0	5.8	56.1	100
수원화성축성체험	20.1	39.2	9.4	31.2	100
수원특례시 해맞이 축제	14.2	33.9	7.3	44.6	100
제야, 새해맞이 경축타종	24.3	41.7	5.8	28.2	100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37.6	41.6	5.0	15.8	100
정조대왕, 혜경궁홍씨(역) 선발대회	9.0	50.1	4.8	36.1	100
수원 화성돌기	21.3	36.9	4.4	37.5	100
수원 부리학교	2.1	22.6	3.5	71.7	100
문화학교	4.5	23.8	16	67.7	100
5060신중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4.6	23.4	4.7	67.3	100
방과후 공유학교	2.5	25.9	3.9	67.7	100
어르신 국어문화 프로그램	1.8	20.0	3.8	74.4	100
여름방학 거점형 돌봄 공유학교	2.0	21.8	4.3	71.8	100
해외문화탐방	1.8	22.7	5.1	70.4	100
수원의 역사문화 부리찾기 비교답사	3.4	22.5	5.2	68.9	100
문화원 소속 동아리 활동	2.9	20.1	5.9	71.0	100
수원사랑 구독	2.9	20.1	5.9	71.0	100

(6) 수원문화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응답결과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가 50.4%로 가장 많은 이유로 분석됨
 - 이밖에도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해서’ 17.7% ‘관심이 없어서’ 13.0, ‘기타’ 7.4%, ‘관람 또는 체험 비용이 비싸서’ 6.7%, ‘거리가 멀어서’ 4.8%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에서 응답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또는 프로그램시간이 맞지 않아서)’, ‘홍보가 부족해서’ 등 사업의 시간과 홍보의 이유를 꼽음

그림 3-8 | 수원문화원 사업 참여경험이 없는 이유



(7) 향후 수원문화원 사업 참여 의향

- 수원문화원의 주요 사업 20개의 향후 참여 의향에 대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 문화원 주관 행사/축제 사업은 대부분 참여 의향이 있으나, 문화원 내 자체 사업의 경우 참여 의향이 없는 사업이 다수로 나타남
 - 행사/축제 사업 중 참여 의향이 없는 사업으로 ‘수원장치기’62.3%, ‘길마재 줄다리기’66.5%, ‘정조대왕, 혜경궁홍씨(역) 선발대회’67.2%로 응답함
 - 문화원 내 자체 사업의 경우 ‘해외문화탐방(63.1%)’을 제외한 사업에서 ‘참여 의향 없음’에 과반수 이상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5060신중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공유학교’, ‘어르신 국어문화 프로그램’, ‘여름방학 거점형 돌봄 공유학교’의 경우 참여 대상 연령이 한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의향 없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표 3-5 | 수원문화원 주요 사업 인지 및 참여 경험

(단위 : %)

구분	참여 의향 없음	참여 의향 있음	합계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40.6	59.4	100
수원장치기	62.3	37.7	100
길마재줄다리기	66.5	33.5	100
경기도민속예술제	32.7(131)	67.3	100
수원화성축성체험	23.2(93)	76.8	100
수원특례시 해맞이 축제	26.2(105)	73.8	100
제야, 새해맞이 경축타종	31.4(126)	68.6	100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26.9(108)	73.1	100
정조대왕, 해경궁홍씨(역) 선발대회	67.2	32.8	100
수원 화성돌기	26.9	73.1	100
수원 뿌리학교	68.4	31.6	100
문화학교	55.6	44.4	100
5060신중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56.1	43.9	100
방과후 공유학교	76.1	23.9	100
어르신 국어문화 프로그램	81.7	18.3	100
여름방학 거점형 돌봄 공유학교	74.4	25.6	100
해외문화탐방	36.9	63.1	100
수원의 역사문화 뿌리찾기 비교답사	50.0	50.0	100
문화원 소속 동아리 활동	64.6	35.4	100
수원사랑 구독	64.6	35.4	100

(8) 향후 희망하는 수원문화원 사업

- 향후 희망하는 수원문화원 사업으로는 ‘음악회,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사업’이 27.4%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현대사회를 반영한 지역축제 운영’이 22.0%로 나타남
- 이밖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문화학교 강좌’ 12.7%, ‘유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11.4%, ‘가족단위 체험형 프로그램’ 11.4%, ‘지역영화제’ 10.5%, ‘문화원 내 편의 시설’ 2.5%, ‘기타’ 1.0% 순으로 나타남

(9) 개선 사항 및 기타의견

- 응답결과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도출됨

- ‘홍보부족’, ‘알려지지 않음’, ‘홍보가 잘 되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포함한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약 24%로 분석됨
- 다음으로 가족 및 세대 통합 프로그램,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등 가족단위, 세대 통합,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프로그램’ 및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의 의견이 각각 약 16%, 약 10%로 분석됨
- 이밖에도 콘서트 및 공연 등 문화 행사 진행, 체험 프로그램 확대, 편리한 공간 제공, 전통과 현대 융합 콘텐츠 행사, 청년 및 MZ세대 대상 프로그램, 지역 연계 소규모 행사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함

2 • 수원문화원(빛누리아트홀) 방문객 조사

1) 방문객 조사 개요

- 수원문화원(빛누리아트홀) 방문객 조사는 수원문화원의 빛누리아트홀 이전 이후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
 - 조사 기간은 24.10.29. ~ 24.11.08.으로 11일간 진행
 - 조사 내용으로는 수원문화원 이용 시점, 수원문화원 인지 경로, 수원문화원 행사 참여 빈도, 수원문화원 행사 참여 목적,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향후 빛누리아트홀 희망공연 종류, 수원문화원 개선방안 등임
- 응답자는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 이전 이후 행사 참여자 111명임
 -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29%, 여성이 71%로 여성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분포는 권선구 59%, 영통구 13%, 장안구 10%, 팔달구 6%, 기타 12%가 응답하였으며, 권선구 거주자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 분포는 1년 미만 11%, 1년 이상~3년 미만 4%, 3년 이상~5년 미만 9%, 5년 이상~10년 미만 23%, 10년 이상~20년 미만 24%, 20년 이상 30%가 응답하였으며, 10년 이상 거주자 비율이 약 50% 이상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분포는 20세 미만 9%, 20대 10%, 30대 14%, 40대 31%, 50대 22%, 60대 이상 15%가 응답하였으며, 40~60대 연령 응답 비율이 높음

표 3-6 |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11)	100.0
성별	남성	(32)	29.0
	여성	(79)	71.0
거주 지역	장안구	(11)	10.0
	영동구	(14)	13.0
	권선구	(66)	59.0
	팔달구	(7)	6.0
거주 기간	1년 미만	(12)	11.0
	1년 이상~3년 미만	(4)	4.0
	3년 이상~5년 미만	(10)	9.0
	5년 이상~10년 미만	(25)	23.0
	10년 이상~20년 미만	(26)	24.0
	20년 이상	(33)	30.0
연령	20대 미만	(10)	9.0
	20대	(11)	10.0
	30대	(15)	14.0
	40대	(34)	31.0
	50대	(24)	22.0
	60대 이상	(17)	15.0

2) 수원문화원(빛누리아트홀) 방문객 조사결과

(1) 수원문화원 이용 시점

- 수원문화원의 이용 시점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6%가 2020년 이후부터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이전부터'는 12%, '2015년 이후~2020년 이전'은 13%, '2020년 이후~2024년 문화원사 이전'은 44%, '문화원사 이전 이후'는 3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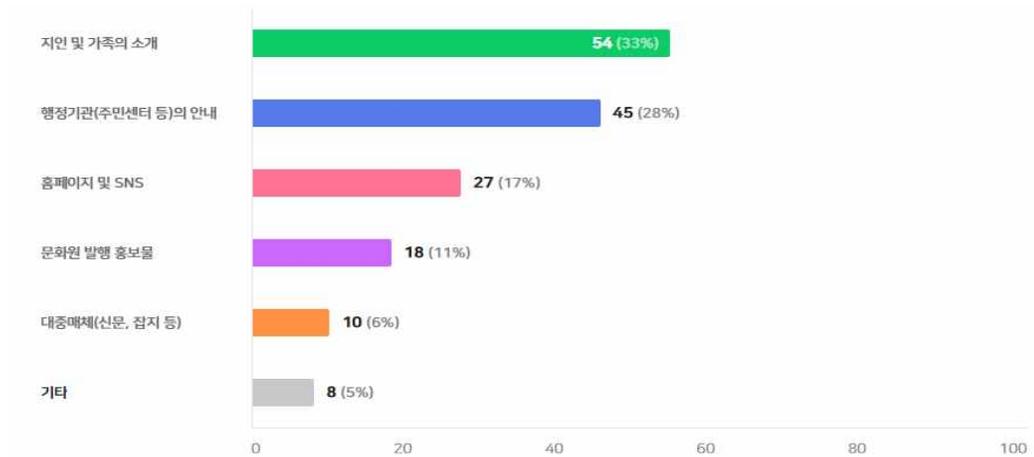
그림 3-9 | 수원문화원 이용 시점



(2) 수원문화원 인지 경로

- 수원문화원을 인지한 경로에 대해 ‘지인 및 가족의 소개’가 33%로 주변의 소개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행정기관(주민센터 등)의 안내가 28%로 나타남
 - 이밖에도 ‘홈페이지 및 SNS’ 17%, ‘문화원 발행 홍보물’ 11%, ‘대중매체(신문, 잡지 등)’ 6%, ‘기타’ 5% 순으로 응답함
 - 수원문화원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객의 경우 온라인 채널 보다는 지인 및 가족 소개, 행정기관 등의 안내를 통해 문화원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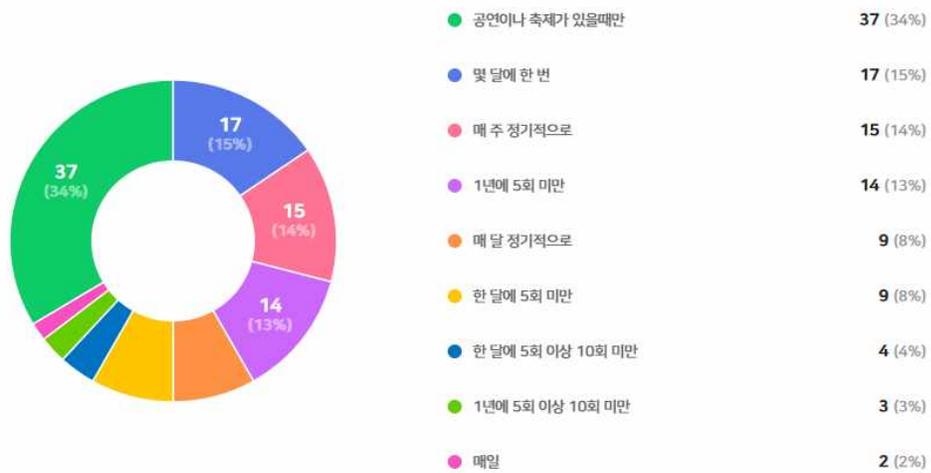
그림 3-10 | 수원문화원 인지 경로



(3) 수원문화원 행사 참여

- 수원문화원 행사 참여 빈도에 대한 응답결과 ‘공연이나 축제가 있을 때만’이 34%, ‘몇 달에 한번’이 15%로 간헐적인 방문자가 약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도 ‘매 주 정기적으로’ 14%, ‘1년에 5회 미만’ 13%, ‘매 달 정기적으로’ 8%, ‘한 달에 5회 미만’ 8%, ‘한 달에 5회 이상 10회 미만’ 4%, ‘1년에 5회 이상 10회 미만’ 3%, ‘매일’ 2% 순으로 응답함

그림 3-11 | 수원문화원 행사 참여 빈도



- 수원문화원 행사 참여 목적으로는 ‘문화예술공연/전시 관람’이 35%, ‘지역축제 참여’ 23%, ‘문화 강좌 수강’ 2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이밖에도 ‘수원의 역사 및 문화탐색’ 13%, ‘기타’ 5%, ‘휴게공간 이용’ 3% 순으로 응답함

그림 3-12 | 수원문화원 행사 참여 목적



-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행사 및 프로그램이 재밌어야 한다’가 40%로 공연이나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을 참여시 고려하는 요인으로 응답함
- 이밖에도 ‘참가비용이 비싸지 않아야 한다’ 19%, ‘주차가 편리해야 한다’ 14%,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편리해야 한다’ 12%, ‘행사 및 프로그램 담당 강사가 전문적이어야 한다’ 5%, ‘기타’ 5% 순으로 응답함

그림 3-13 |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4) 향후 빛누리아트홀 희망 공연 종류

- 향후 빛누리아트홀에서 개최해주길 희망하는 공연 장르로는 ‘뮤지컬(34%)’, ‘콘서트(29%)’, ‘클래식(18%)’ 순으로 나타남
- 이밖에도 ‘뮤직페스티벌(9%)’, ‘인형극(4%)’, ‘기타(4%)’, ‘연극(3%)’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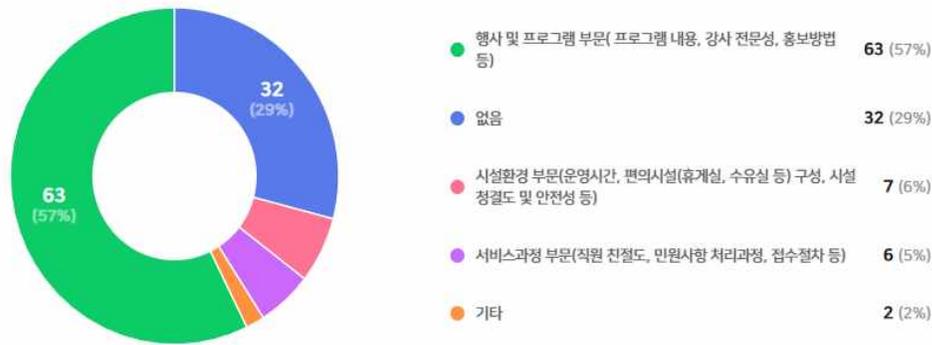
그림 3-14 | 빛누리아트홀 향후 희망 공연



(5) 수원문화원 개선방안

- 수원문화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행사 및 프로그램 부문(프로그램 내용, 강사 전문성, 홍보방법 등)’으로 응답함
 - 이밖에도 ‘없음’ 29%, ‘시설환경 부문(운영시간, 편의시설구성, 시설 청결도 및 안전성 등)’ 6%, ‘서비스과정 부문(직원친절도, 민원사항 처리과정, 접수절차 등)’ 5%, ‘기타’ 2% 순으로 응답함
 -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행사 및 프로그램이 재밌어야 한다’는 응답이 40%인 것으로 보아 수원문화원의 향후 프로그램 및 사업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

그림 3-15 | 수원문화원 개선 제안



- 수원문화원에 대한 추가 의견(주관식)으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예매 서비스 구축’, ‘다양한 장르의 공연 유치’, ‘예정 공연 안내 홍보’, ‘공연장 대기 공간에 자판기 설치’ 등이 있음

3 • 시사점

1) 시민 인식 조사

- 수원문화원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 및 지역 내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며, 특히 20-40대에서 수원문화원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 및 수원문화원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낮은 인지도 원인으로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원문화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홍보 시 명확한 수원문화원의 프로그램 소개가 필요
- 수원문화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로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사업의 명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수원문화원에 대한 인지 경로 중 SNS와 주관행사 참여 비중이 높으므로 파급효과가 큰 SNS 채널이나 축제를 활용한 홍보 방안 모색 필요
- 시민조사 결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사업과 차별화된 지역 축제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강좌 수업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개설되길 희망하므로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주민친화적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필요
- 수원문화원의 개선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및 가족단위형 체험 프로그램,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2) 방문객 조사

- 수원문화원 방문객의 경우 가족 및 지인, 문화원 발행 홍보물 등 온라인 매체보다는 수원문화원의 행사 또는 지인의 영향으로 수원문화원을 방문하고 인지하는 계기가 되므로 기방문객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수원문화원 자체 지역행사 진행 등 필요
 - 과반수가 공연이나 행사 진행 시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이며, 정기적 방문객은 기존 문화원 강좌 수강생이므로 신규 방문객이 올 수 있는 행사·공연 구성 필요
- 방문객 과반수가 프로그램의 기타 요인(가격, 접근성 등)보다는 프로그램 질(행사나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야 한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수원문화원의 개선방안에서도 행사 및 프로그램 부문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향후 프로그램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획 필요
- 빛누리아트홀 희망 공연 종류로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연 섭외 및 기획 시 방문객 수요에 맞는 장르 구성 필요

제2절 내부관계자 의견 수렴

1 · 개요

□ 목적

- 수원문화원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어려움이나 개선, 요구사항 및 문화원 발전방안 등 전반적인 의견 청취

□ 주요 내용

- 문화원의 위상, 역할과 기능
- 문화원 사업 평가
- 직무만족도, 업무 환경 등

표 3-7 | 인터뷰 대상

일 시	대상	비고
2024.9.24.	경영지원부 2명, 문화사업부 2명, 공연기획부 5명	부서별 인터뷰
2024.11.4.	부장 3명	개별 인터뷰
2024.11.14.	원장 및 사무국장	

2 · 의견 수렴 내용

□ 수원문화원의 역할과 기능, 위상 등에 대한 견해

- 과거에는 수원문화원의 고유한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였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연계 기관들이 생기면서 전문성의 차이, 중복사업 진행 등이 발생
- 광역시인 울산시의 경우 6개 정도의 문화원이 있는데, 수원시민은 125만명임에도 문화원은 1개뿐임. 강의실 3개와 사무실 하나 정도의 시설로는 문화원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원문화원의 이미지가 고리타분하고 올드한 이미지라 시대흐름에 맞는 변화(사업) 필요
- 지방문화원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하되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 재정립 필요

- 이관 전 문화원은 위치적 제약으로 유아, 청소년 등 젊은 층 유입에 한계가 있었으나, 장소 이관으로 학생 수요층이 많을 것으로 기대
- 호매실의 거점 공연장, 문화시설장이 되었으면 하나, 시설과 장비의 한계가 존재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침
- 이관 전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문화원 공간을 기획, 공연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나 객석 수, 장비, 인력 등의 한계로 규모가 한정적이라 다소 아쉬움
- 인지도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하며 문화원을 이용하던 기존 이용객만 지속적으로 방문(많은 홍보 필요)
- 수원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보존 등을 위해 노력함에도 예산의 한계로 데이터 유실 우려(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예산 필요)
- 시민회관도 공연, 대관을 해왔기 때문에 문화원이 전혀 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는 견해도 있음
- 시설적인 측면에서 노후화 된 차이일 뿐이지 과거부터 해온 사업을 새로운 시설에 와서 하는 것임
- 과거에는 문화원이 공연기획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에는 없었는데 현재는 추가됨

□ 수원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 수원문화원이 지방문화원으로서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고유사업들은 지속적운영이 필요함(뿌리학교, 지역문화연구소, 민속자료 수집 발간, 문화학교 등)
- 다만, 운영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안으로 풀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공급자 중심의 사업구성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업 구성 및 운영, 신규 이용자 유입을 위한 사업 계획필요(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수요파악 필요)
- 문화적 교육프로그램은 지속적 유지 및 확산하길 희망
-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
- 발간물 사업의 경우 필자 섭외 어려움, 소재 중복, 시민관심 저조 등으로 발간 횟수가 감소
- 대안학교 위탁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원의 성격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과 전문가 풀 구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제시
-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일몰

- 시민회관 때는 없던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부분들은 키워나가야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정관사업의 경우도 꼭 수원시를 위한 행사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함

○ 빛누리아트홀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공간에서의 제약이 많이 발생(공간대비 대관료가 비싸다는 민원 발생)

- 아트홀을 위탁하고 있어 사무실을 3층만 쓰고있는데 강의실이 3개나 있는데도 방음이 제대로 안되어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없음

- 빛누리아트홀은 시설이 좋지 못해(음향반사판도 없고, 조명도 간단한 행사 정도만 가능한 조명들 뿐임) 전문 예술인이 공연을 하기위해서는 음향이랑 조명에 대한 임차를 별도로 해야하는 실정이라 전문예술인이 공연하기는 힘들

○ 문화원의 동아리들 중 공연을 매개로 하는 동아리들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무대를 올려주거나 다른 동아리들도 특별전시회처럼 만들어준다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문화원의 행사들이 의미 있고 좋은 행사들이 많은데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행사지 주변 분들이나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만 알고 대부분 모름

- 바이럴 홍보는 한계가 있으며, 공연을 올리는 것이나 홍보 모두 비용의 제한이 있음

□ 직무만족도 및 처우, 조직 관련 견해

○ 시민회관 시절보다는 근무 환경은 좋아졌으나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 처우는 달라지지 않음

-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에 비해 직원들 처우가 낮음

○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휴가 보장이 필요함

- 사업 특성상 근무 일정이 균일하지 않아 주말근무나 야근이 잦은데 야근수당 지급 제한 및 연차 사용이 어려워 직원들의 잦은 이직 발생

- 공연은 주말 공연이 주이기 때문에 휴일을 바꾸고 싶는데 시에서 협조를 해줘야함

○ 인력 충원 및 사업 조정 필요

- 원사 이전 후 아트홀 운영 등으로 문화원 전체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인력 운영의 한계로 인해 담당해야 할 사업과 업무량이 증가됨

○ (부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직원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 직원 변동이 많아지면서 개인간, 부서간 의견 충돌이 증가하고 경영진의 의견이 강요되는 부분들이 있음

제3절 전문가 자문의견

1. 개요

□ 목적

- 지방문화원의 정책 동향 및 지방문화원의 역할 재정립 제언

□ 자문 내용

- 중앙 정부의 지방문화원 정책 동향
- 전반적인 지방문화원의 운영 방향성
- 우수 지방문화원 운영 사례
- 수원문화원의 운영 방향성 검토 등

표 3-8 | 자문 대상 및 일정

일 시	이름	소속 및 직위	비 고
2024. 9. 20.	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정책센터장	개별자문
2024. 10. 24.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연구팀장	개별자문
2024. 10. 24.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한국문화원연합회 자문위원	개별자문
2024. 11. 11.	김준기	전 <수원사랑> 편집위원	개별자문

2. 자문 의견

□ 지방문화원 역할 및 기능

- 전국 지방문화원 조직의 강점 중 하나가 230개 전국 조직임
- 지방문화원은 전통 근현대 문화 유산의 전승과 계승 보전을 우선 목표로 하고 부수적으로 서비스될 것들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함
 - 문화재단과 다르게 지방문화원이 정체성을 가져가려면 지역학을 바탕으로 파생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지역학 연구와 마을박물관이 지방문화원의 중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음

- 마을박물관 형태의 박물관을 만들고 그 안에 지역의 생활사 관련 자료들이 관리하고 활용하는 역할 담당

□ 문화원의 지역학 연구

- 문화원이 석박사 이상의 전문적인 학술연구자들이 모여있는 전문 지역학 조직이 아니라면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나 자료 수집 밖에 하지 못함
- 문화원이 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문연구 중심의 지역학 연구소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학 관련 사업들을 특화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채록하거나 자료를 발굴정리 및 아카이브 서비스하는 역할의 기초 거점이 될 수 있음

□ 수원문화원 운영방향성

- 지역 문화를 위한 시민 거점 기관이자 이와 연관된 공연·전시 플랫폼으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이에 맞춰서 사업의 가치나 방향을 재정립하고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록 함
 - 문화원이 지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인력을 배출하고 그 인력들이 다른 기관에서 일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음
- 지역 내에서 수원문화원이 맡아야 될 핵심 역할과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의 공생 체계에 대한 전략들을 구상하도록 함
 - 지역학이나 지역 생활 기반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작업할 때도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문화원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문화원 직원들의 문화적 소양과 역량이 미흡해 보이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원 교육이 매우 중요함

□ 수원문화원 사업 운영 전략

- 문화원은 생활사 중심의 지역 문화와 관련된 아카이빙 교육, 이를 위한 네트워킹 혹은 플랫폼 역할을 해주며 생활사 중심의 지역학을 교육, 아카이빙, 콘텐츠 등으로 풀어내도록 함
 - 근현대 생활사를 소재로 하지만 동시대적으로 접근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며 생활사 기반의 지역학 그리고 그걸 아카이빙하고 다시 콘텐츠화시키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교육하고도 연결하도록 함
- 민속학적 지역연구가 문화원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사업일 것임(예를 들어 고색동 도당곳에 대한 사설 채록, 복색 보존과 기록 등)

- 시니어를 특화한 프로그램이 시민문화교육 안에 중요한 섹션이며 시니어와 세대 간 교류 같은 것도 좋은 역할임
 - 노인들의 문화공간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나 문화원의 경우 액티브 시니어들보다는 패시브 시니어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문화원이 이전한 호매실 지역은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04

수원문화원 발전 방향

제1절 운영 방향성 재정립

1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환경 요인

1) 지방문화원 정책적 환경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지방문화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책무가 강조됨
 - 지방문화원은 1965년 지방문화사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었으나, 1994년 지방문화원의 역할 및 기능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지방문화사업조성법」 폐지 후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제정함
 - 2002년부터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가권한과 관리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이 지자체로 지속적으로 이관됨
 - 2020년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활성화에 대한 책무가 강조되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고유 핵심역할로서 지역가치의 창조와 공유가 강조되고 있음
 - 지방색 약화, 고유문화 소실 위기로 연결되어, 지역문화의 기록·보존·활용 주체로서 지방문화원의 중요성 인식
 -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전담기관화, 지역학 거점 역할 부여, 소실 위기 지역 기억저장소(아카이빙) 기능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2) 수원시 지역적 환경

- 수원시의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 수는 35.3개로 수도권 50.2개, 전국 63.1개에 비해 적은 편이며 지역간 편차가 심함

-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문화기반시설의 인구 백만 명 당 개수는 수원시는 12.6개로 수도권 22.0개, 전국 39.0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임
- 팔달구에는 공공도서관 외에 모든 종류의 문화기반시설이 골고루 분포해 있는 반면 영통구에는 박물관만이 집중되어 있고 장안구에는 미술관과 문예회관이, 권선구에는 생활문화센터 한 곳만 있음
- 공연장의 경우 전체 22개 중 거의 70%에 해당하는 15개가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음
- 수원문화원이 이전한 서수원 지역은 인구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 권선구에는 수원시 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경기문화재단이 들어서 있는, 구 서울 농생대를 활용한 경기상상캠퍼스가 서수원지역의 유일한 문화공간이었으며 2024년 빛누리아트홀이 개관하면서 공공도서관 외에 최초의 공연시설이 들어선 것임

3) 수원문화원 변화

- 팔달구 고등동 원도심 지역에서 서수원 지역으로 원사가 이전함으로써 해서 거점 지역이 변화하였음
 - 인근 지역주민의 이용 비율이 높은 생활권 문화시설의 특성상 문화원이 위치해 있는 호매실과 인근 서수원 거주민들의 이용 비율이 높아질 것임
 - 주 이용층의 변화에 따른 문화원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소공연장인 ‘빛누리아트홀’을 운영을 맡게 되었음
 - 다목적 강당이었던 ‘수원시민회관’과는 다른 전문적인 공연장에 가까운 ‘빛누리아트홀’을 운영해야 하므로 이에 맞는 전문성과 조직운영이 필요함
 - 그동안 서수원 지역에 들어선 공공 공연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획이 요구됨
 - 한편 전문 공연장이라고 하기에는 시설이나 장비가 미흡한 점이 있어 이러한 제약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함
- 인력변동과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조직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업무환경과 조건이 바뀌고 대규모 신규직원이 유입되면서 근무 분위기가 변화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함
 - 업무량 증가, 불평등한 처우 등으로 인해 조직 불만족 및 직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2 운영 방향성 재정립

1) 지역학 사업의 방향

- 생활사미시사(지역 공동체의 생활문화)의 당대 기록화 중심의 지역학 사업 추진
 - 시간 경과와 사회 변화에 따른 기억과 자료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인구 노후화에 따른 근현대사 기록의 소멸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원자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 개발에 따른 기존 지역의 소멸에 가까운 변화로 인해 그 지역 속의 다양한 삶의 기억들이 유실되고 있음
 - 박물관은 보다 오래된 시대의 자료와 큰 규모의 사건 중심의 역사를 보존하는 곳이라면 문화원은 개인과 공동체의 당대의 삶과 소소한 자료들을 보존하는 곳이 되어야 함
 - 지역의 변화에 대응한 개인, 공동체, 마을기록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할 주체와 공간이 필요함
- 문화원의 지역학 사업은 학자나 전문가보다는 시민 중심의 지역학 활동 강화
 - 시민들이 직접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잊혀지거나 소멸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 결과물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음
 - 수원학연구센터와 박물관은 전문가와 학자 중심의 지역학 연구 및 사업을 하는 반면 문화원은 시민들과 지역학의 매개가 되어야 함
 - 시민들이 직접 지역학 기록의 생산자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뿐 아니라 수원학연구센터나 박물관의 전문가들의 성과들을 문화원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임

2) 문화사업 방향성

-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콘텐츠나 프로그램, 서비스 강화
 - 생활권 문화시설의 특성상 기존에 문화원이 위치했던 원도심 주변의 주민들보다 수원문화원이 이전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임

- 인근 주민 이용객들을 유입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증가시켜야 함
- 기존의 이용자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정도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이 상황에 몰두하기보다 신규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유용함
- 수원시평생학습관은 동수원 지역에 위치해 있어 서수원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낮는데 서수원 지역의 평생학습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원도심 지역보다는 인구층이 젊은 편이며 아동·청소년들도 많은 편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사회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세대간 소통이 단절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장노년층 이용자가 많은 문화원의 특성을 살려 세대간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도 바람직함

□ 공연장과 전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동아리 운영

- 작품제작이나 무대실습 같은 문화시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함
- 예술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문화 동아리들에게 공연장과 전시장에서의 발표·전시 기회 제공 확대
- 공연장 조건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
 - 공연장 시설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가능한 타입의 공연들을 찾아 목록화함
 - 예산 부족은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아르코 등의 기획공모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3) 조직 운영 방향성

□ 사업환경에 맞춰 조직도 변화해 가는 것이 필요함

- 늘어난 사업규모에 맞출 수 있게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현 직원들의 지역문화와 예술적 역량을 높일 뿐 아니라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시도 필요
- 직원 간 업무의 균형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 필요

제2절 추진 전략

1. 사업 부문

1) 기존 사업 정비

□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수원장치기”, “길마재출다리기”

- ‘우수전통민속보존’이라는 사업취지를 살려 계속 추진하되 대폭적인 사업개선이 필요함
 - 잊혀져가는 민속놀이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행사만 매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 의미가 퇴색된 상태임
- 별개의 두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
 - 각 행사를 격년제로 돌아가며 하되 통합예산으로 제대로 된 시연 추진
 - 마을굿 등 새로운 민속놀이나 행사를 발굴하여 매년 다른 행사로 추진
 - 행사 시연만이 아니라 행사를 자원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다큐멘터리 영상물, 스토리텔링 책자 등)

□ 제야새해맞이 경축타종 / 해맞이 축제

-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수원문화원이 대규모 수원시민과 만날 수 있는 행사이긴 하나 두 개의 행사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문화원의 인력이나 예산 상 무리가 있음
 - 하나의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사업운용에 적정
- 이 사업이 수원시 행사가 아니라 문화원 행사라는 것이 알려질 필요가 있음
 - 행사 현장에서 수원문화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아 학습 중단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나 수원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 대안교육을 진행하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과 공간이 필요한데 반해 문화원은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음

□ 문화학교 / 수원뿌리학교

- 서수원 지역 이전으로 문화학교에 관심 갖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지역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이미 빛누리아트홀 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시민회관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더 확장하도록 함

- 수원뿌리학교는 지역문화인력 및 시민기록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문화하는 것을 고려해보도록 함

- 이러한 인력양성 교육은 지역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서 인문학적 소양, 현대적 테크놀로지 활용에 이르는 매우 복합적인 과정으로 구성됨

- 기록은 단지 구술이나 문헌작성만이 아닌 사진이나 영상, 뉴 미디어 활용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음

-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사람들의 실제 기록작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

□ 수원지역문화연구소 운영 / 민속자료 수집 및 발간

- 문화원에서의 지역학 사업은 전문가와 학자 중심의 연구 사업보다는 시민 중심의 개인·공동체 역사 기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함

-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기록물 분포·소장 현황을 조사, 근현대 생활사 자료 현황 조사 및 수집

- 마을의 역사문헌, 마을의 과거와 현재의 풍경사진, 행사사진, 주민 참여축제 사진, 거주작가의 예술작품, 마을 주민 대상 구술 자료, 언론보도(신문·방송) 자료 등을 조사·수집 목록화(아카이빙) 진행

- 지역학 연구의 학술성은 '수원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원문화원의 수원지역 문화연구소는 수원지역문화연구소를 기록화 사업 중심의 (가칭)'수원생활사(생활문화)연구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함

- 수원학연구센터와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수원학연구센터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시민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관계 형성

- 시민기록의 지역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분야(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등)를 전공한 전담 상근 인력이 필요함

- 그동안 연구소 위원들 중심의 발간물은 시민기록자들의 결과물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음

- (가칭)'수원생활사(생활문화)연구소'는 장기적으로 '마을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수원사랑> 발간

- 기관이 정기적인 간행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용하고 그간 발간된 <수원사랑>은 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기능을 지속해가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함

- <수원사랑>은 수원을 소재로 하는 일반 잡지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는 수원문화원의 소식지 성격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함
- 수원문화원의 행사나 프로그램 소개, 참여자들의 후기, 시민기록자 활동기 등을 포함하고, 편집디자인을 개선하는 등의 변화와 페이지 수를 줄이는 대신 발간횟수를 격월 정도로 늘려서 발행

2) 추진 과제

□ 빠르게 변화하는 내외부 변화에 흔들림없이 스스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정리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수원문화원은 가시화되어 있는 비전과 목표 등이 없는 상태이므로 조속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외부 용역에 의지하기보다 내부의 TF를 꾸려 외부 연구진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전 직원이 계획 수립 과정과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조직의 비전을 직접 설정하고 직원 전체가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효과가 있음

그림 4-1 | 사례) 이천문화원 중장기 계획 참여자



- 수원문화원의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에 있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기존의 문화행사 뿐 아니라 빛누리아트홀 공연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빛누리아트홀 공연 티켓예매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함
 -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의 SNS 계정을 개설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시행해야 함
 - SNS 홍보 업무 담당자 배정이 필요함
- 문화원의 마을기억 저장기능을 강화하는 마을 박물관 추진
 - 생활사 자료들이 축적되면 이러한 자료에 대한 적절한 보존과 이를 시민에게 공개 할 상설 전시 공간 마련 필요
 - 생활·문화 기록 등 지역 고유 자료의 수집·관리뿐 아니라 활용 강화를 위해 ‘마을박물관’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 접촉면을 확대
 - 시민들을 마을 큐레이터로 양성하여 주민 주도형 마을박물관 조성

사례) 미추홀구 마을박물관

- 2015년 인천 미추홀구청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삶과 추억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큐레이터’가 자원활동가로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박물관을 조성함
- 마을박물관은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축골 마을박물관, 독정이 마을박물관으로 이루어져 있음
- 마을박물관 조성을 위해 미추홀구는 마을박물관 수요조사, 대상지 섭외 등 행정지원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상설전시기획, 마을큐레이터 양성을 진행함
- 마을박물관은 기획특별전시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큐레이터 지원을 하고 있음

그림 4-2 | 미추홀구 마을박물관



□ 수원문화원 회원 모집을 적극 확대하여 안정적인 이용자층 및 자원 확보

- 회원제 등급화 등 회원제도를 개선하고 회원 증대 캠페인 추진
 - 회원제 및 회원 등급에 따른 혜택 차별화로 회원 충성도 제고
 - 빛누리아트홀의 공연사업이 활성화되면 회원 등급제가 더 필요해짐

그림 4-3 | 이천문화원 회원제

정회원	일반회원
후원금 15,000원	후원금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 본원 발간한 모든 신규도서 제공 ★ 정회원 대상 특별강좌 등 우선 초청 ★ 본원 소장자료 열람 및 대여 ★ 이천문화달력 특별판 우편발송 ★ 이천문화원 정회원 배지 증정 ★ 우수활동 정회원 포상(해의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저널, 『설봉문화』 제공 이천문화달력 우편발송 각종 공연·전시·교육 프로그램 초청 이천문화나눔파티 참여 우수활동 일반회원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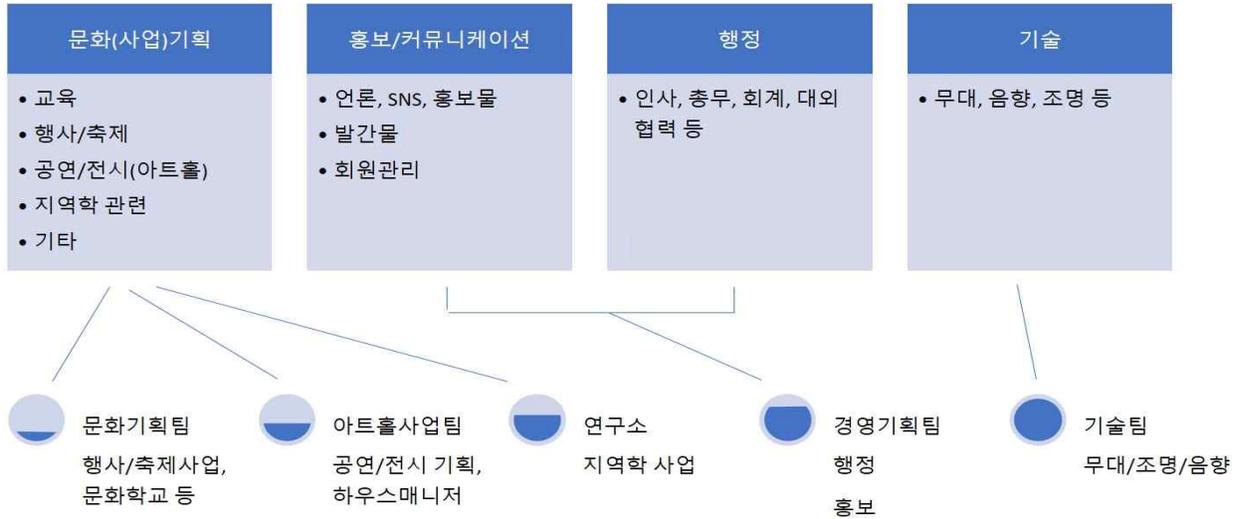
2 · 조직

1) 조직 개편

- 외부 전문가 그룹을 통한 조직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함
 - 조직 진단을 통해 업무량과 내용을 파악하고 조직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으므로 유용함
 - 지역 이전, 빛누리아트홀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과 업무가 변화하였으므로 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화 방안을 모색
 - 조직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이 효과적임

- 이사회가 주로 재정적 후원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한다면 문화원 사업의 전문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 문화원의 직급 체계를 좀 더 단순화하고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 직급명(부장, 차장, 대리 등)과 직위명(팀장)이 혼재되어 혼란스러우므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직급체계를 세분화하기보다 단순화시킴으로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
- 문화원의 업무는 크게 공연·전시·행사·교육 등 문화(사업)기획, 무대·조명·음향 등 기술 업무, 인사총무·회계 등의 행정, 홍보·커뮤니케이션 업무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음
 - 각 업무 영역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상이나 업무량과 전문성, 강도에서 차이가 많으므로 조정이 필요함
 - 앞선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도봉문화원, 이천문화원의 팀제 구성을 벤치마킹하여 직원 간 업무 분배의 형평성, 나아가 소통 강화를 통한 업무 간 조율을 꾀할 필요가 있음
 - 문화 기획이 문화원 업무의 핵심이며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팀으로 여기에는 무리가 있음
 - 교육, 공연/전시, 행사/축제 등 영역별 사업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 팀을 분화하는 것이 적절함
 - 아트홀 중심의 공연/전시와 그 밖의 문화사업으로 분류 가능함
 - 지역학 관련 사업들은 성격상 문화 기획에 포함될 수 있으나 향후 전망을 고려해서 별도의 업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문화기획쪽 사업량과 비교했을 때 홍보/커뮤니케이션과 행정이 한 팀으로 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임
 - 기술팀은 그 특성상 분리가 되기 어려운데 독자적 팀으로 있거나 다른 팀과 합쳐진다면 아트홀사업팀이나 경영기획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림 4-4 | 업무 영역과 팀 관계 예시



2) 역량 강화

-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문화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의 조직에서는 시스템보다 개인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직원의 역량 강화에 힘을 써야함
 - 직원들의 문화예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
 - 내부에서 자체 교육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외부에서라도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시민기록자 과정, 지역문화 인력양성과정 등을 실시하면 직원들도 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
-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직원이 수행하는 과업의 내용 중 무엇에 대한 학습욕구 또는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수요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직원들의 교육수요 내용이 유사한 경우 코호트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의 몰입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유사기관의 임직원을 초청하여 적합성이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함(예: 소규모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 코호트 기반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므로 교육기회 제공 그 자체를 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되어야 함
- 수원문화원과 같이 규모가 작고, 팀제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직 내에서 생산된 암묵지와 같은 체화된 지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직원의 이탈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도록 1:1 멘토링 또는 그룹 코칭과 같은 비일상적인 학습기회 제공이 필요함
-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는 현 조직을 몇 개의 팀으로 구분한 뒤, 팀원 간 특정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암묵지가 조직 내에 축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조직 문화

□ 조직이 확대되면서 소원해진 개인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하는 동료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우선적으로 문화원 소속 정직원과 아트홀 위탁사업 직원 사이에서 급여 등 동일 직급 간에서 처우의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

- 직무의 난이도와 직위가 지닌 책임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은 정당성을 지닐 수 있으나, 객관적인 직무분석이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금 격차는 장단기적으로 내부 구성원의 화합과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아트홀 위탁사업 직원 또한 문화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부서간 순환근무를 통해 조직 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수원문화원에서 요구되는 조직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러한 조직문화를 달성할 수 있는 미시적 전략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수원문화원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여타의 다른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다면, 현재의 계서제 구조에서 벗어나 실무자에게 더욱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원문화원의 구성원 규모가 크지 않아 계서제 조직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이 외부환경의 변화(신규 사업)가 발생하는 경우 구성원 간 과업조정을 위해 관리자의 권한이 증대되는 것이 일반적임

- 관리자가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은 유지하되,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와 같은 제도의 도입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음

- 이 외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을 대상으로 인정과 보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 전략도 새로운 접근법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참고문헌

REFERENCE

국문 자료 |

- 기분좋은큐엑스(주). (2023). **대덕문화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 연구**. 대덕문화원.
- 대덕문화원. (2024). **2024년 대덕문화원 정기총회 회의자료**. 대덕문화원.
- 도봉문화원. (2024).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도봉문화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22~26)**. 문화체육관광부.
- _____. (2023).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수원문화원. (2018). **수원문화원 60년사 1956년~2016년**. 수원문화원.
- _____. (2024). **수원사랑**. 2024 봄과 여름 vol.287. 수원문화원.
- _____. (2024). **수원의 문화, 100년의 내일을 위한 터전**. 수원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 백서. 수원문화원.
- 이천문화원. (2020). **이천문화원 제2차 장기발전계획.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천문화**. 이천문화원.
- 장훈. (2019).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문화원연합회.
- 조용준. (2019). **수원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추미경. (2020). **지방문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연구**. 한국문화원연합회.

신문기사 / 웹사이트 / 통계자료 |

대덕문화원. <https://www.ddcc.or.kr/index2.php>

도봉문화원. <https://www.dobong.or.kr/main/index.php>

수원문화원. <http://www.suwonsarang.com>

이천문화원. <https://www.cc2000.or.kr/>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jumin.mois.go.kr>

통계로 보는 수원. <https://www.suwon.go.kr/stat/index.do>

통계청. (2024). **국가통계포털**. kosis.kr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s://www.kccf.or.kr/>

연구책임자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박천희 (아주대학교 연구조교수)
이유나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SRI-정책-2024-11

수원문화원 발전방향 연구

발행인 김성진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4년 11월 30일

발행 2024년 11월 30일

ISBN 979-11-6819-049-8

© 2024 수원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최지연. 2024. 「수원시문화원 발전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